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기술경영학 석사 학위 프로젝트 보고서

창업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
: 지원기업의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2020년 2월

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과

정 현 주

기술경영학 석사학위 프로젝트 보고서

창업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
: 지원기업의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민규

석사학위 논문에 준하는 보고서로 제출함.

2019년 2월

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과

정 현 주

정현주 의 기술경영학 석사학위 프로젝트보고서를 인준함.

2019년 2월 21일



위 원 장 공학박사 옥 영 석 (인)

위 원 공학박사 최 승 욱 (인)

위 원 경제학박사 이 민 규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4
II. 선행연구	6
1. 선행연구	6
III. 설문조사 방법 및 평가	8
1. 심층인터뷰 방법연구	8
2. 심층인터뷰 대상자 선정	11
IV. 인터뷰 결과분석	21
1. 심층인터뷰 내용	21
2. 조사 결과	24
3. 인터뷰 내용 결과 분석	35
V. 결론	45
1. 결론 및 시사점	45
2.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의 방향	48
참고 문헌	49
1. 국내 문헌	49
2. 국외 문헌	51
<부록: 질문지>	52

표 목 차

<표1-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 성과-----	4
<표 3-1>질적 연구와 양적연구의 차이-----	9
<표 3-2>창업기업 전체 현황 -----	12
<표 3-3>창업기업 사업자등록현황-----	13
<표 3-4>사업자등록여부-----	14
<표 3-5>폐업사유 -----	14
<표 3-6>직원 수 -----	15
<표 3-7>사업아이템 -----	15
<표 3-8>창업지원프로그램 수료자 일반현황 -----	16
<표 3-9>인터뷰 대상자의 전체 현황 -----	17
<표 3-10>인터뷰 대상자 사업자등록여부 -----	18
<표 3-11>인터뷰 대상자 사업아이템 -----	18
<표 3-12>인터뷰 대상기업 직원 수 -----	19
<표 3-13>인터뷰 대상자 일반현황 -----	20
<표 4-1>질문지 내용 -----	22
<표 4-2>인터뷰 대상자 및 세부 진행결과 -----	23
<표 4-3>부산시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장점) -----	35
<표 4-4>부산시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의견(단점)-----	36
<표 4-5>부산광역시의 정책 및 제도 대한 의견(장점) -----	40
<표 4-6>부산광역시의 정책 및 제도 대한 의견(단점) -----	41

그 립 목 차

<그림1-1> 부산시 창업지원사업 세부 내용 -----	3
<그림1-2>연구 구성의 흐름도-----	5
<그림3-1>창업기업 전체 현황-----	12
<그림3-2> 창업기업 사업자등록 현황-----	13
<그림3-3> 사업자 등록 여부-----	14
<그림3-4> 폐업사유-----	14
<그림3-5> 직원 수-----	15
<그림3-6> 사업아이템 -----	15
<그림3-7> 인터뷰 대상자사업자 등록여부 -----	18
<그림3-8> 인터뷰 대상자 사업아이템 -----	18
<그림3-9> 인터뷰 대상기업 직원수-----	19
<그림4-1>부산시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	37
<그림4-2> 부산광역시의 정책 및 제도 대한 의견 -----	42
<그림5-1> 기업의 수요도와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의 도식화-----	46

A Study on the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tart-up Support Project
: Focused on interviews of support companies

Hyun Ju Jeong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finding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Busan City start-up support project that has been under way since 2008. As a method of investigation, it has chosen an in-depth interview method for applicants. By analyzing the results of interviews with 10 interviewers with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I would like to presen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support project. We also considere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by presenting opinions on policies and systems that are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mander.

Key word : Start-up, Start-up support project, Satisfaction of Support project ,
Busan Metropolitan City Start-up Support System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은 1986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신기술사업 금융법」 제정을 통해 처음 마련되었으며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을 통해 창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시책의 기본사항과,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중소기업 성장을 도우며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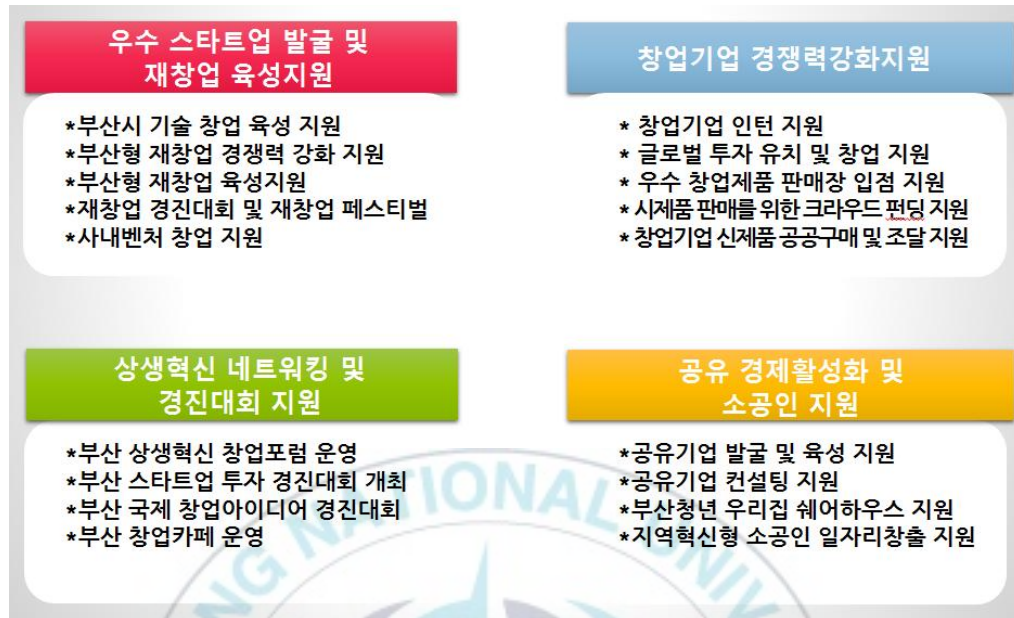
현재 정부는 창업과 관련하여 6,15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창업교육,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판로 및 해외진출, 행사 및 네트워크, R&D, 정책자금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기업들이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활용 수준이 높지 않고, 사업 자체적으로도 대다수가 지원금과 같이 형식적인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전인오, 2012;) 우리나라의 성과 위주 창업지원사업은 창업성공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박남규, 2015), 'OECD 주요국별 창업기업의 생존율과 생존기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2013년 기준 41%에 불과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로, 룩셈부르크(66.8%), 호주(62.8%), 미국(57.6%), 이스라엘(55.4%), 이탈리아(54.8%) 보다 낮은 수치이다. 특히 신규 사업자의 75.2%는 설립된 지 평균 5년 안에 폐업했고, 벤처 설립 후 1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사업자는 오직 8.2% 뿐으로 나타났다(박남규, 2015; 김춘근, 2015).

이와 같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은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낮고 폐업률이 높은 결과를 보았을 때, 민간투자의 협업을 통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효과를 배가 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창업시장 현황은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창업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재분배 하는 등 개선해야할 창업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전략적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사업이 외형적 예산투입관점에서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들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니즈에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에 대해, 창업지원사업을 수혜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세부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는 정부지원 사업은 부산광역시 시행하고 있는 ‘부산시 (기술)창업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산광역시가 시행하고 있는 창업 지원은 창업 초기 사업의 구상에서부터 기업 설립 및 성장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내용, 즉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판로·해외 진출, 행사·네트워크 지원을 사업 기간 내(1년)에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그 외 다양한 창업 붐 조성을 위한 행사 및 일자리 지원도 진행 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산시 창업지원사업은 우수 스타트업 발굴,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 네트워킹 및 경진대회, 공유경제 및 소공인 지원으로 4가지의 큰 범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그 중 우수 스타트업 발굴에 해당하는 ‘부산시 (기술)창업지원 사업’의 지원 기업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1-1> 부산시 창업지원사업 세부 내용

2010년부터 시행한 ‘부산시 (기술)창업지원사업’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간 배출한 창업자(팀)은 1,900개팀에 이른다. 18년도 까지는 매년 200개팀을 선발·보육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50개팀씩 총 100개팀을 선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부산시 (기술)창업지원사업’의 수료업체 중 현재 창업유지 업체 수는 999개사로 그동안 3,854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4,860억원의 누적 매출을 보이고 있다.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2.1 연구 방법

창업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형태에 따른 실태와 성과 분석을 하는 연구가 존재한다.

<표1-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 성과

경제적 성과	-매출 증가 기업의 비중 70.9% -과제당 평균 매출액 14.1억원, 영업이익 0.96억원 발생
기술적 성과	-기술수준 28.5%, 기술자립도 37.5%가 각각 상승 -기술격차 세계 최고 수준대비 2.4년 단축
일자리 창출	-과제 수행으로 신규 고용한 기업 비중 53.0% -과제당 평균 신규고용 인원은 3.54명
생존율 제고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 생존율 74.8% *생존율 : (1-부도가능성이 높은 기업 수 / 응답 기업 수)

자료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16)

위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제적, 기술적, 일자리, 생존율 측면에서의 성과를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부처별·지원기관별 세분화된 자료는 공개되어 있지 않고, 수요자 중심의 시각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질적 접근방식인 인터뷰에 의한 사례연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심층인터뷰의 대상자는 부산시 창업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창업기업의 대표자 구성하였으며, 비확률적 표본 추출¹⁾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1) 비확률적 표본 추출 : 무작위 방법과 같은 확률 표본 추출이 불가능 하거나 비경제적일 경우, 연구자가 임의로 모집단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성격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2.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전체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1장 서론에서는 본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창업지원사업의 실태와 한계점을 분석 하였다. 2장에서는 선행 연구 분석으로, 정부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한 연구들을 분석 하였다. 이어 3장에서는 본 연구가 택한 조사방법인 심층인터뷰 방법에 대한 연구와 인터뷰 대상자(표본)에 대해 언급하였다. 인터뷰의 대상은 부산시 창업지원사업의 직접수혜를 받은 대표자로 업종, 업력, 기업의 현재 상황 등의 관점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가진 10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4장에서는 인터뷰 결과를 각 항목별로 정리하고 결과에 대해 분석 하였다. 인터뷰 결과는 4가지의 질문사항별로 의견을 정리하고, 종합된 의견들은 다분히 나타난 공통의 의견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제5장 요약 및 시사점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창업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림1-2> 연구 구성의 흐름도

II. 선행연구

1. 선행연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성과(매출·고용 등)를 도출하여 분석하여 실효성을 말하는 연구가 대다수이다. 사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두고 성과도출에 유의미한 지원사업을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성과란 기업의 목표가 경영계획하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한 결과물로서 경영전략의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지표를 의미한다.(고세훈, 2011, 이무형, 2011.). 성과는 기업의 성공과 경쟁우위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및 경영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Mone et al., 1998; Lawson& Samson, 2001)

기업성과는 내용은 같으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구분하는 범주는 크게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구분하거나,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이형기(2010)는 대학의 기술사업화 지원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업의 기술사업화능력과 기술경영 혁신능력이 상호작용하여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실증 분석하였다.

청년창업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있다. 창업관련 초기 프로세스 개선, 창업 멘토링 운영, 경영기반 중심의 컨설팅 지원, 창업성공 우수기업 성장지원 등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

였다(정석화, 신호균,2016). 창업보육센터내 창업기업들의 창업 성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 지원금 지원과 입주사간 협업 지원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수혜자(대표자)의 만족도를 창업성으로 대체하는 연구도 있었다. 창업 초기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정량적 지표를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매출액이나 수익률 등의 객관적 성과를 측정하기도 하며, 기대달성 여부, 만족도 등과 같은 주관적 성과를 통해 측정하기도 한다. 즉, 창업만족도를 경영성이나 창업성, 조직유효성의 종속변수나 요인으로 두고 분석을 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연구들의 대부분은 지원 사업을 받기 전 보다 매출이나 고용부분에 성과가 드러났으며, 지원사업의 만족도는 만족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은 분명 나타나 보인다.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기업의 성과는 점점 상승이 될 것이며 초기기업들에게는 그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다. 만족도의 경우 지원 사업을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의지 하에 지원하여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그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가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보았을 때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점이 있고, 만족도 조사의 결과는 대부분 정량적인 결과에 의하므로 정성적인 측면을 알기는 힘들다. 정량적인 수치만을 분석하는 연구가 아닌 지원기업의 인터뷰를 통해 바라보는 수요자의 관점에서의 연구도 필요하다.

Ⅲ. 설문조사 방법 및 평가

1. 심층인터뷰 방법연구

심층인터뷰는 경험적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질적 연구방법에 속한다. 그런데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은 통계라고 할 수 있고 특히, 미국에서 Social Research라는 방법론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이 방법은 양적 분석의 방법과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질적 연구방법은 통계가 놓치고 있는 이 사회의 구성원들의 주관적, 주체적 입장이나 전문분야의 생각들을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조성돈, 2004; 김용정·송영욱, 2014). 즉, 언어적(상징적) 텍스트를 계량화하는 정확도를 중요시 하는 양적 연구와는 달리, 질적 연구는 텍스트의 이해와 관계된다. 이러한 이해의 방법은 언어뿐만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들이 언어적으로 이해될 수 있거나 재구성할 수 있다는 신념하에 외형적인 구조 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들이며 발달해 왔다(이효선, 2005).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3-1> 질적 연구와 양적연구의 차이

구분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사회이론	작용, 행동(Action)	구조(Structure)
현실인식	주관적으로 도출된 다양한 현실	객관적 현실
연구방법	관찰, 인터뷰	실험, 조사(Survey)
추론방법	귀납적	연역적
표본추출	이론적	통계적
언어유형	개인적, 비공식적, 상황 종속적	공식적이며 규칙에 기준한 문장
연구자 역할	연구대상 현상과 상호작용	연구변수에서 분리, 독립되어 활동
주요특징	정확도, 타당도	신뢰도
	자료의 1차적 의미 파악	일반화에 유의
	비표준화	표준화
	연구대상을 총체적으로 파악	특정변수의 효과 분리
	사례, 관찰, 면접	상관성, 인과성

자료 : 김용정 · 송영근, (2014) 심층인터뷰 방법을 이용한 한국 항공물류산업의 장애 요인과 발전전략 연구

심층인터뷰는 집단 인터뷰와 개별 인터뷰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 사용된 개별 인터뷰는 연구자가 개인의 의견을 묻고 듣는 조사 방법이다. 따라서 일반 설문(만족도)조사로부터 획득하기 어려운 개별적인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반면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 및 섭외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신혜란(2007)은 심층인터뷰는 대화 형식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 대상자의 구두 진술을 수집하고 사건들의 순서와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대상자

의 표현된 인식을 분석하여 알아보는 연구방법이라고 한다. 주로 연구자와 인터뷰 대상자 직접 만나 연구 목적과 범위에 따라 인터뷰 형식과 분석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연구 방법으로는 연구할 수 없는 다양하고 생생한 연구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Baxter & Eyles(1997)는 심층인터뷰가 연구방법으로서 양적 분석과는 상이한 이론적 체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서 그 특이성만 강조하여 신비화하는 경향은 연구방법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했다(김용정·송영옥, 2014).

인터뷰 방법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비공식(informal) 인터뷰, 비구조화된(unstructured) 인터뷰,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인터뷰, 구조화된(structured) 인터뷰가 그것이다(AsaBerger, 2000/2001).

비공식 인터뷰는 통제되지 않은 인터뷰로, 연구자가 연구 목적을 소개하거나 대상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인터뷰다(나미수, 2016). 비구조화된 인터뷰는 연구자가 상대적으로 대상자의 반응을 통제하지 않는 인터뷰다.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연구 대상자에게 질문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비구조화된 인터뷰와 같은 편안한 상황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인터뷰다. 마지막으로 구조화된 인터뷰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가 답변해야 할 질문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스스로 작성하는 설문지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이영규, 2019)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 하였으며 최소로 필요한 문제의 질문만으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과정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2. 심층인터뷰 대상자 선정

2.1 부산시 (기술)창업지원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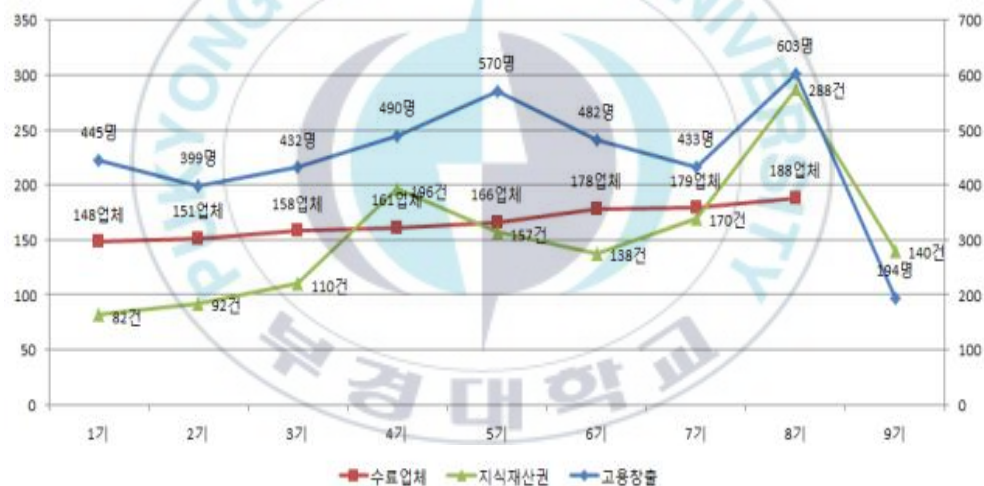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다룰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부산시 (기술)창업지원사업’은 올해로 10년째로 매년창업자를 선발하여 그 간 1,900개사의 기업을 선발 및 보육하였다. 매년 선발하는 창업자는 기수 (1기, 2기, 3기 …)로 구분하여 보육하고 있다. 그 중 대표성을 가진 심층인터뷰 대상자를 찾기 위해 ‘부산시 (기술)창업지원사업’을 수행했던 기업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단, 아래의 결과는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있으므로 2019년에 선발된 10기, 11기의 결과와 2019년 8월에 수료한 9기의 성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부산시 기술창업지원지원사업의 사업구성(1기~9기)은 매년 200개 팀을 선발하여 일정 프로그램(교육·컨설팅·네트워킹 등)을 수행하는 참여도를 반영하여 ‘수료기업’으로 분류를 하여 자금을 지원하였다. 2019년도 기업 (10기, 11기)의 경우 ‘수료기업’의 개념이 사라지고 선발과 동시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 되었으며, 타 프로그램(교육·컨설팅·네트워킹 등)은 동일한 형태로 진행된다.

<표3-2>창업기업 전체 현황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선정업체	200	200	200	200	186	208	200	200	210
수료업체	148 (74.0%)	151 (75.5%)	158 (79.0%)	161 (80.5%)	166 (89.2%)	178 (85.6%)	179 (89.5%)	188 (94.0%)	-
고용창출(명)	445	399	432	490	570	482	433	603	194
매출 (백만원)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지적재산권(건)	82	92	110	196	157	138	170	288	140



<그림3-1>창업기업 전체 현황

기수별 수료업체는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연도별 프로그램 수료자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창출의 경우 4기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6기 이후에는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나, 8기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적 재산권은 8기가 응답 기업 수당 지적재산권(1.8건)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3-3> 창업기업 사업자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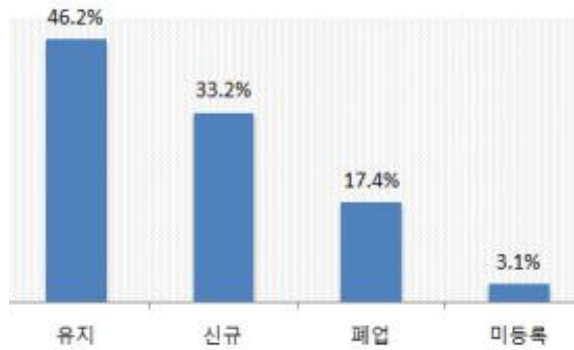
구분	수료업체	기업수	2018사업자등록현황 (단위:기업)					
			창업			미창업		
			계	신규	유지	계	미등록	폐업
1기	148	97	78	6	72	19	0	19
2기	151	151	85	1	84	66	42	24
3기	158	157	95	2	93	62	32	30
4기	161	160	124	3	121	36	16	20
5기	166	166	127	0	127	39	9	30
6기	178	178	147	4	143	31	12	19
7기	179	179	179	18	161	0	0	0
8기	188	188	164	21	143	24	0	24
9기	-	97	83	70	13	14	14	0
계	1,329	1,373	1,082	125	957	291	125	166



<그림3-2> 창업기업 사업자등록 현황

<표3-4> 사업자등록여부

구분	비율
유지	46.2%
신규	33.2%
폐업	17.4%
미등록	3.1%
전체	100%



<그림3-3> 사업자 등록 여부

사업자등록 현황 중 신규라고 표현된 부분은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예비창업자 즉 사업을 준비 중인 단계의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지원사업인만큼 대부분이 신규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정부분(17.4%) 폐업한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폐업의 이유는 아래의 표와 그림에 나타나 있다.

<표3-5> 폐업사유

구분	비율
경영악화	41.9%
기타	23.9%
매출부진	20.5%
폐업 후 취업	12.0%
건강 등 체력문제	0.9%
상품개발실패	0.9%
전체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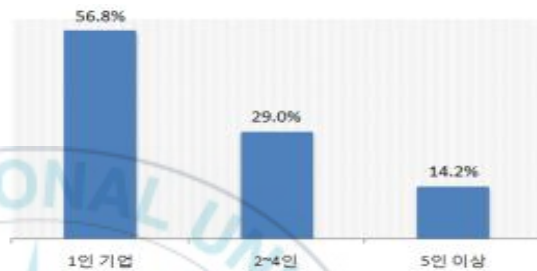


<그림3-4> 폐업사유

폐업의 이유는 ‘경영악화’가 41.9%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타’ 23.9%, ‘매출부진’ 20.5%, ‘폐업 후 취업’ 12.0%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사항으로는 ‘개인사정’, ‘자금부족’, ‘출산’, ‘인수’, ‘시장분석 실패’, ‘임대 계약기간만료’ 등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다.

<표3-6> 직원 수

구분	비율
1인 기업	56.8%
2~4인	29.0%
5인 이상	14.2%
전체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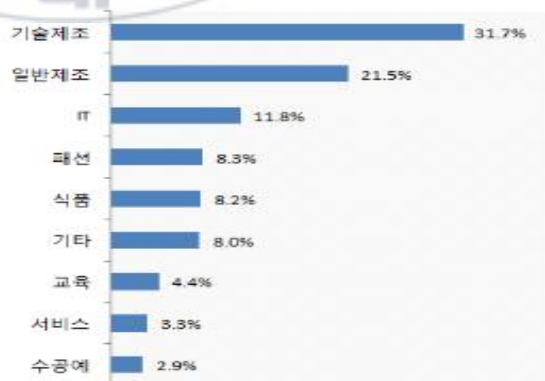


<그림3-5> 직원 수

창업기업의 직원 수를 보면 업력이 10년 가까이 되는 1기(2010년도 기업)을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 기업’이 56.8% 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2~4인’ 29.0%, ‘5인 이상’ 14.2% 순으로 나타난다. 평균 직원의 수는 2.52명으로 나타난다.

<표3-7> 사업아이템

구분	비율
기술제조	31.7%
일반제조	21.5%
IT	11.8%
패션	8.3%
식품	8.2%
기타	8.0%
교육	4.4%
서비스	3.3%
수공예	2.9%
전체	100%



<그림3-6> 사업아이템

지원기업의 사업아이템은 ‘기술제조’가 3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제조’ 21.5%, ‘IT’11.8%, ‘패션’ 8.3% 순이다.

<표 3-8>창업지원프로그램 수료자 일반현황

구분		비율
성별	남성	69.4%
	여성	30.6%
연령대	20대	16.4%
	30대	52.8%
	40대	26.9%
	50대	3.4%
	60대 이상	0.5%
최종학력	대졸	80.4%
	대학원졸	12.4%
	고졸	6.0%
	전문대졸	1.2%
사업자등록여부	유지	46.2%
	신규	33.2%
	폐업	17.4%
	미등록	3.1%
사업자 유형	개인	80.2%
	법인	19.8%
직원 수	1인 기업	56.8%
	2~4인	29.0%
	5인 이상	14.2%
지적재산권 유무	없다	31.0%
	있다	69.0%

지원기업의 일반현황 중 성별은 ‘남성’이 69.4%로 여성보다 많고, 연령대는 ‘30대’가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부산시 (기술)창업지원사업 현황의 데이터들 중 2019년 7월에 수료한 9기와 신규 선발된 10기,11기의 경우는 반영되지 않았다. 약 300개 기업의 데이터가 반영이 되면 상당부분의 수치가 변경 될 것으로 예상된다.

2.2 심층인터뷰 대상자 분석

인터뷰 대상자는 비확률적 표본추출방법으로 구성하였다. 부산시 (기술)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과거에 수행을 한 이력이 있는 대표자로 구성하였으며.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다양한 업종,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였다. 단, 우리나라 정부지원 사업에서 창업기업이라고 분류함의 최대기간이 업력7년인 점을 고려하여, 7년 이상 업력의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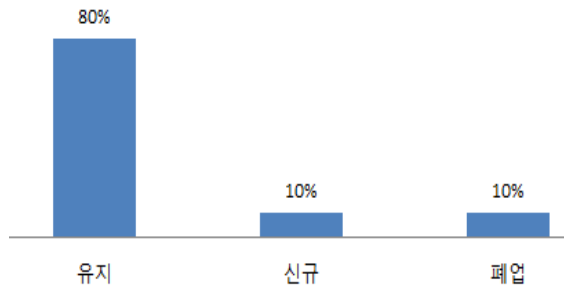
<표3-9> 인터뷰 대상자의 전체 현황

구분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합계
대상자(명)	2	1	1	-	1	2	2	1	10
직원수	14	4	3	-	-	3	3	3	30
창업이후 연평균 매출액 (백만원)	980	100	200	-	70	120	150	-	1,620

가능한 다양한 기수별로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 하였으며, 1기 2기의 경우 창업업력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창업기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단계임으로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표3-10> 인터뷰 대상자 사업자등록여부

구분	빈도	비율
유지	8	80%
신규	1	10%
폐업	1	10%
미등록	-	-
전체	1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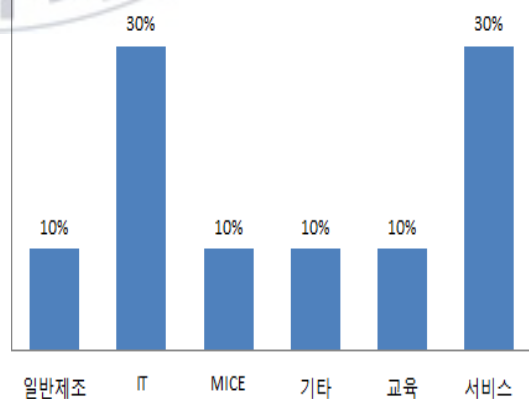


<그래프3-7> 인터뷰 대상자사업자 등록여부

인터뷰 대상자들 중 신규 기수인 10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분류가 되었다. 앞서 창업지원사업 전체 현황에서의 폐업률이 상당부분(17.4%)을 차지하였으므로, 인터뷰 대상자 중 폐업기업을 포함하였다. 폐업의 사유는 경영 악화로 앞서 분석한 전체 창업기업의 폐업사유에서 가장 높은 비율(41.9%)을 차지한 항목과 동일하다.

<표3-11> 인터뷰 대상자 사업아이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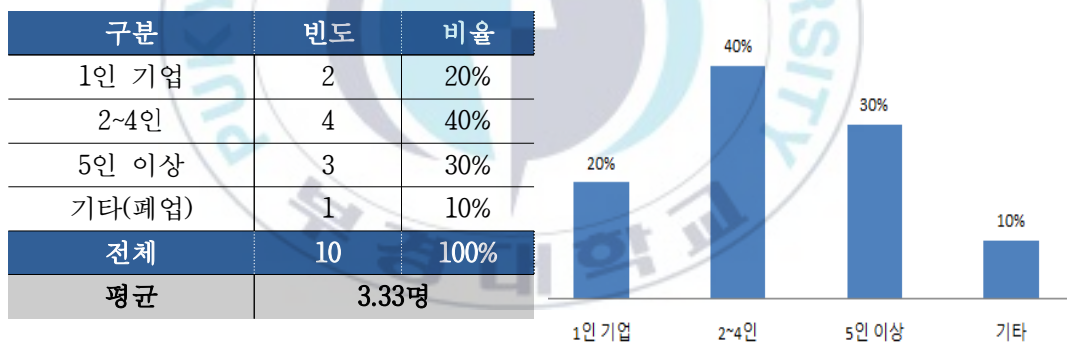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일반제조	1	10%
IT	3	30%
MICE	1	10%
기타	1	10%
교육	1	10%
서비스	3	30%
전체	10	100%



<그래프3-8> 인터뷰 대상자 사업아이템

인터뷰 대상자들의 사업아이템의 경우 IT와 서비스 업종이 각각 30%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그 외의 업종(일반제조, MICE, 교육, 기타)은 각 10%로 나타났다. 기타업종의 경우 디자인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이며 시각디자인 뿐 아닌 영상·제품·기업로고 디자인을 비롯하여 최근 건물 디자인 까지 진행하고 있는 업체로 다양한 업종을 아우르고 있다는 판단으로 기타로 분류하였다. IT업종의 경우 주로 홈페이지 제작·관리, 플랫폼 개발,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개발·운영하는 업체로 구성되어있다. 서비스 업종의 경우 스토리텔링 및 디자인 기반의 콘텐츠 기업, 캐릭터 개발로 인한 다양한 상품 및 콘텐츠 개발 기업, 영상 제작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최근 VR 가상현실 아이템 신규 개발 중) 들로 구성되어있다.

<표3-12> 인터뷰 대상기업 직원수



<그림3-9> 인터뷰 대상기업 직원수

인터뷰 대상기업의 직원 수의 평균은 3.3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류한 전체 창업기업들의 직원 수 결과와 흡사하게 2인~4인구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폐업한 기업의 경우 현재 직원이 0명(대표자 포함)이므로 기타로 분류하였다.

<표3-13> 인터뷰 대상자 일반현황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8	80%
	여성	2	20%
연령대	20대	2	20%
	30대	4	40%
	40대	4	40%
	50대	-	-
	60대 이상	-	-

성별은 여성 창업자는 2개 사였으며, 연령대는 3~40대가 주를 이루었다.

앞서 분석한 부산시(기술)창업지원사업의 전체 현황의 분포와 비슷한 표본을 선정하려고 노력하였다. 위의 현황들은 별도의 자료를 취합한 것은 아니며 인터뷰를 진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이다.

IV. 인터뷰 결과분석

1. 심층인터뷰 내용

창업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와 같이 정량적인 자료를 토대로 효과를 분석하려고 하였으나, 기존의 자료의 성과적인 측면을 계량 분석하였을 때 논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었다. 이것은 초기기업에게 집중된 지원사업의 특성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초기 기업의 성과는 지원사업의 성과로 판단되기보다, 기업 고유의 성과(경영성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원금 규모 및 지원사업진행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 도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정량적인 조사 방법인 심층인터뷰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원기업의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은 2010년부터 진행된 ‘부산시 (기술)창업지원사업’의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성을 가진 10개사를 선정하였다. 이에는 반 구조화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최소 필요한 문제의 질문만으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과정에서 인터뷰 대상자로부터 반응을 유도하고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활용된 반구조화된 질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자의 기업 소개를 시작질문으로 하여 ‘부산시 (기술)창업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장·단점, 부산에서 창업활동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정책, 제도적 관점)에 대해 질문하였다. 마무리 질문으로는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표4-1> 질문지 내용

질문지
Q1. 각자 기업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Q2. 창업지원(부산시 창업지원사업)을 받으면서 도움이 되었던 점은 ?
Q3. 창업지원(부산시 창업지원사업)을 받으면서 아쉬웠던 점은 ?
Q4. 부산 내에서 창업활동 하면서 좋았던 점은 ? (예 : 정책적 혜택, 제도적 혜택 등)
Q5. 부산 내에서 창업활동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예 : 정책적, 제도적 관점에서)
Q6.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나

질문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룰 ‘부산시 (기술)창업지원사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부산광역시의 정책 및 제도적인 관점의 장·단점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래의 표과 같이 총 10명의 인터뷰 대상자와 함께 총 8회의 개별인터뷰를 및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지원기업들 중 대표성과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20대, 30대, 40대가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인터뷰 방법은 연구자가 해당 기업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고, 상황이 여이치 않는 경우 별도의 회의실 공간을 활용하여 인터뷰 하였다. 다만,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시간적 제한으로 서면에 의한 답변으로 대체하고, 전화로 인터뷰를 간단히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표4-2>인터뷰 대상자 및 세부 진행결과

대상인원	업종	업력	일시	장소	비고
창업자1	IT	1년미만	‘19.10.10	창업자 사무실	창업동아리 출신
창업자2	서비스	6년	‘19.10.10	창업자 사무실	
창업자3	MICE	2년	‘19.10.12	-	
창업자4	제조	2년	‘19.10.20	창업자 사무실	
창업자5	IT	2년	‘19.10.20	창업자 사무실	
창업자6	서비스	6년	‘19.10.29	창업자 사무실	
창업자7	서비스	2년	‘19.10.30	-	외국인 창업자
창업자8	IT	4년	‘19.10.30	창업지원센터	폐업
창업자9	IT	5년	‘19.11.1	창업카페	
창업자10	기타	5년	‘19.11.1	창업카페	

2. 조사결과

개별 인터뷰 결과는 본 연구의 질문사항별로 대상자의 답변을 정리하고, 종합된 의견들은 다분히 나타난 공통의 의견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인터뷰 내용의 분석 결과, 질문지에서 구성한 대로 크게 ‘부산시 (기술)창업지원사업’과 부산광역시의 정책·제도라는 범주로 나뉘었다. 한편 두 가지의 범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행정업무’에 대한 새로운 수준이 상당 부분 등장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3개의 큰 범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세부 범주는 다음과 같다. ‘부산시 (기술)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장·단점 및 특징, 부산광역시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장·단점 및 특징, 행정업무에 대한 의견으로 분석되었다.

2.1 부산시 (기술)창업지원사업 : 지원기업의 입장에서 체감한 장·단점

지원사업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보면, 공통의 의견들이 나타났다. 지원사업의 프로그램(교육·컨설팅·자금지원·공간지원·네트워킹지원)들 중 가장 많은 의견이 있었던 부분은 네트워킹 지원부분이다. 지원사업을 받으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을 질문하였을 때 첫 번째 대답으로 ‘네트워킹’을 답변한 기업이 4개사나 있었다. 심지어 사업종료기간이 5년이상이 된 기업의 경우에도 사업진행당시 형성하였던 네트워킹의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우선 가장 큰 도움은 대표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업종별 교류회’뿐만이 아니라 워크숍을 시작으로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 함께 교육을 들으면서도 친분을 쌓을 수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 점이 제가 창업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보통 창업 2~3년차일 때 힘들다고 하잖아요? 저의 경우는 그 시기에 함께 시작한 창업기업 대표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며 힘을 얻게 됐죠. 창업자의 멘탈관리를 진흥원이 많이 도와준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아직까지도 가장 감사하고 고마운 점입니다. (창업자2)

기본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억지로 가다보니 자연스럽게 대표들과 친해졌어요. 전 그때 대학교 재학 중이라 학교수업과 창업교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는데, 창업교육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좋고 적극적이었어요. 다들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많이 보였죠. 거기서 뒤흔치면 안 된다는 자극도 많이 받았던 거 같아요. 그 때 친해진 대표들과 아직 까지도 서로 잘 지내고 있어요. 꼭 친분뿐만이 아니라 서로 자극이 되는 존재가 가까이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 인 것 같아요. (창업자5)

주관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워크숍’ 및 ‘업종별 교류회’등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형성한 네트워크는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의 예상에는 ‘네트워킹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지원기관 및 멘토들의 네트워킹의 부분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단발성으로 끝이 났고 지속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었던 것이 ‘사무공간제공’에 관한 것이다. 지원사업의 기간(1년)동안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사무공간지원에 대한 것도 만족도가 높았다.

사실 그때는 체감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가장도움이 되었던 점을 꼽으라고 하시면 저는 사무공간제공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센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대료며 관리비며 정말 만만치 않아요. 저는 직원도 없는데 일 년으로 보면 고정비가 엄청나더라고요.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 영업을 다니느라 사무실에 잘 못나가긴 했지만 지금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에서 임대료가 나갔다면 더 감당 안됐을 것 같아요. 저는 창업하고 1년 동안은 거의 매출이 없어서 그때만약 임대료까지 감당해야했으면 아마 지금은 폐업하고 어디 다른 여행사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창업자3)

가장 좋은 점은 사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이지요. 인터넷 판매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제품 포장이며 택배 분류작업을 위한 공간까지 충분히 배정을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융당캡퍼스가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제조 기업들한테는 세금 혜택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사실 돈 내고서라도 여기 계속 있고 싶은 심정이에요(창업자4)

프로그램 중 상반된 의견이 나타나는 것은 교육과 컨설팅 지원프로그램이었다. 답변자들에 따라 ‘도움이 되었던 점’으로 답변해준 사람도 있었지만 ‘가장 아쉬웠던 점’에 답변해준 사람도 있었다.

정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잖아요? 특히 저는 아이디어 단계였는데 그때 받았던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가상 현실이라는 것이 생소하였는데 아이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때 설계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까지 저를 먹고 살게 하고 있으니 아마 능력 있는 멘토님을 만났던 거 같아요. (창업자6)

스타트업으로써 필요한 경영 및 사업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입식교육이 역시 최고죠. 그중에서도 특히 저작권 및 특허 관련 교육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때 그 교육을 안 들었으면 아마 저는 지금 각종 벌금으로 재정상태가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창업자7)

컨설팅지원은 취지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제가하는 사업과 크게 연관이 없는 분들과 매칭이 되었어요. 그 점이 사실 가장 아쉽죠. 컨설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그만큼 실망도 많이 했어요. (창업자7)

매주 2회씩 5~6시간이나 창업교육을 받는 부분이 제일 힘들었죠. 일회의 교육이 너무 길고, 회사 일정으로 교육전체를 다 듣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보니 교육내용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의무적으로 가야했던 압박감만 기억이 나요.(창업자8)

위의 내용과 같이, 교육·컨설팅 지원프로그램에는 강사 및 컨설턴트에 따라 편차가 나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교육의 경우 필수 프로그램에 속하다 보니 업종과 맞지 않는 강의도 일정부분 수료를 해야하는 부분에서 불만족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원사업에 대한 공통적인 불만사항은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체계에 관한 것이 다수의 의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업 수료기업으로서 느꼈던 아쉬운 점은 창업지원 체계가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었으면 훨씬 효과적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창업지원 분야를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기술혁신형과 창업가 개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교적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생계밀착형 등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균형 잡힌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자2)

추가 지원사업이 없다는 점이에요. 처음단계의 지원 사업은 많은데 그 지원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음단계 진입에 대한 제도가 없는 거 같아서 아쉬워요. (창업자4)

입주가 사실 제일 먼저 지원되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부터 진행되었던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주소지가 먼저 필요한데 사업자 등록은 빨리 내라고 하면서 공간은 나중에 준다고 해서 집주소로 먼저 등록하고 변경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지원프로그램 일정 같은 것을 좀 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업자1)

그 외의 기타 의견으로는 지원 금액이 적고, 사용하는 항목이 한정적이라는 의견(창업자1),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창업자3), 입주연장으로 인해 재정적 혜택을 받았고(창업자5), 연계 지원 사업(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판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창업자7)등이 있었다.

2.2 부산광역시의 정책 및 제도 : 지원기업의 입장에서 체감한 장·단점

창업지원사업을 바라보기 위해서 더 넓은 관점임 부산광역시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논의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중인 ‘부산시 (기술)창업지원사업’의 경우 재원이 부산광역시의 예산인 만큼 매해 부산시의 창업관련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원사업 중 하나 이다.

부산광역시는 “창업문화 확산으로 글로벌 창업도시 도약”이라는 슬로건으로 현재 다양한 창업행사 개최와 창업기업지원을 하고 있다. 대학, 공공기관, 대기업, 민간창업지원기관들이 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창업행사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지원기업을 지원기업의 입장에서 인터뷰 하였다.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질문에도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단어는 ‘네트워킹’이었다. 지원사업의 인터뷰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답변자들 중 3인 이상이 부산시 창업자 간 네트워킹 및 인프라의 네트워크가 잘 되어있다고 답변하였다.

다른 지방보다 기업들 간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있어요. 서울 같은 지역은 워낙 스타트업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부산 내 기업들은 기업 간의 네트워킹으로 서로 정보교환이나 행사도 많이 공유하곤 해요. 그리고 센텀 주변에 각 정부기관들이 많이 있고 저와 비슷한 업종을 가진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인프라가 잘되어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마 여기에 정부지원기관이 있어서 기업들이 물리는 것 같기도 하구요(창업자7)

창업자간 네트워크를 조직하기가 몹시 용이 해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부산 스타트업들의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필요한 네트워크 형성을 쉽게 할 수 있죠. 최근에는 제 블록체인에 관심이 생겼는데 블록체인 세미나 행사에 참석했다가 마음 맞는 몇 대표님들이랑 이미 모임을 형성했어요. 지금 비공식이지만 조금 더 체계화가 되면 공식화해서 회원을 모집할 겁니다. 이런 형태로 원하는 모임을 만들기가 쉬워서 정보를 조사하는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요. (창업자4)

또한 부산광역시의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 여러 지원 사업들을 체험하는 기업입장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 및 정책이 존재하고 있어 창업활동을 하기 용이하다는 답변을 많이 받았다.

부산 내에서는 IT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은 거 같아요. 경제진흥원의 도움으로 처음 시작하긴 했지만, 정보산업진흥원이나 CENTAP에서 지원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의 경우 IT기업인경우에 일 년 내내 무료 컨설팅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게 있으면 바로 그 쪽의 컨설팅을 이용하고 있어요. (창업자1)

사실 창업관련으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은 창업자들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도 항상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려고 창업자들과의 소통도 많이 하려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창업자2)

청년창업²⁾에 대한 지원이 많죠. 각 기관별 강연이나 세미나등 행사도 많
구요 청년 추가 고용에 대한 지원이 많아서 좋은 거 같아요. 아직 제가 청
년의 나이에 속해서 더 좋은걸 수도 있지만 청년창업쪽에 지원금이 많죠.
(창업자³⁾)

이렇듯 대부분 지원정책 및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
었지만, 이런 정책 및 제도들이 각 지원기관별로 혼재되어있어 기업입장에
서는 획득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필요한 지원 사업을 검색해서 이에 대한 정보를 획득, 이해하는데 시간
이 너무 많이 소요되죠. 부산 내 각종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 사업
내용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포털 개념의 사이트와 같은 매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 나한테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인데 모르고 지나쳐 아쉬웠
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원 사업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가
부족한 초기 창업자들을 위해 통합 포털을 구축하면 좋을 것 같아요.(창업
자⁸⁾)

많은 정부 지원사업들이 있으나, 일부 업종 및 일부 기업에게 집중되어
제공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2) 청년창업 : 만39세 미만을 청년이라 구분하여 청년층에 대한 창업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력 아이템이나 일부 기업한테만 집중되어서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부산시 재원의 경우에는 국비처럼 중복지원이 가능해서 그런지 중복 지원을 저렇게 많이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몇몇 기업들도 있고요. 그런걸 보면서 지원사업 심사에 공정성에 대해 의심 해 봤어요. 어떤 기준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 심사결과가 공개가 안 되니 저 같은 비주류 업종에서는 억울한 일이 자주 생겨요. 같이 창업하는 기업들이랑 네트워크가 생긴 이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의심했던 특혜의혹의 기업들은 대부분 인맥을 통해서 선정된 게 맞더라고요. 사실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그런 점들이 아쉽죠(창업자3)

기업 및 지원기관의 네트워킹 및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투자자 및 투자지원기관 관련 인프라에 대한 아쉬운점언급이 있었다.

투자를 받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아요. 일단 투자자를 만날 기회가 잘 없고 지원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통해서 투자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서울에 있으니깐, 지속적인 진행이 힘들더라고요. (창업자1)

부산에도 이제 창업관련 인프라가 많지만 아직은 서울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중 투자관련 인프라가 많이 차이나죠. (창업자2)

그 외의 기타 의견으로는, 판로확보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아서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부산시 유관기관과 계약할 때 부산소재 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등)(창업자10)과 타 지역 및 국비지원사업의 무분별한 벤치마킹 외에 부산만의 지역·산업적 특색을 고려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창업자2)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2.3. 행정업무에 대한 의견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행정업무에 관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다.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은 서류작업 및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 사업 담당자에 대한 의견까지 포함하고 있다.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들은 대부분 불만 사항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원금 지급 받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지출 증빙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담당자님이랑 거의 2주 가까이 서류 때때 왔다 갔다 한 거 같아요.
(창업자1)

지원금 공고가 뜨면 개별통보를 해주겠다고 해서 챙겨보지 않았었는데 결국 놓친 게 너무 아쉽죠. 아마 초기 기업들은 저 같은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담당자 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창업자5)

업무 진행과정이 너무 더디다는 점이에요. 선정심사와 결과까지는 거의 한 달이 넘게 걸리고, 지원금도 신청 후 거의 한 달 정도 있다가 지급받은 거 같아요. 인력부족이 문제인지 행정업무가 과도한지 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점들이 아쉽죠.(창업자9)

기본교육을 수료할 때 교육 일정과 강사가 너무 자주 바뀌었어요. 보통은 처음 일정 통보가 되고 그대로 이행이 되는데, 저희 기수때는 그게 너무 많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웠어요. 일정이야 그렇다 쳐도 강사 및 교육 과

정까지 바뀌어서 당황했었죠. 기본교육 테이블 중 필요한 것을 들으려고 미리 거기에 맞게 일정 조정을 했었는데, 결국은 제가 원하는 강의를 못 들었었어요. 그때만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다시생각해도 아쉬운 점이에요.
(창업자8)

그 외의 서류 접수 방식 최신화 필요(창업자10), 멘토링 프로그램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필요(창업자7) 등의 의견이 있었다. 행정업무에 관한 의견 들에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뿐만이 아닌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담당자들의 업무 스타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 인터뷰 내용 결과 분석

인터뷰지의 질문 중 기업의 현황과악 질문을 제외한 핵심질문 4가지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표4-3> 부산시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장점)

대상자	창업지원(부산시 창업지원사업)을 받으면서 도움이 되었던 점은 ?
창업자1	- 창업자간 네트워크 ▶ 교육, 워크샵을 통해 형성
창업자2	- 창업자간 네트워킹 ▶ 5년째 지속되고 있는 네트워킹의 장점 강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전반적인 지식 습득
창업자3	- 공간제공 ▶ 입주 사무실, 창업카페 무료 대관 등 -창업자간 네트워킹
창업자4	- 공간제공 ▶ 입주 사무실 제공, 세금 혜택 등 -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자5	- 전문가 교육(초기 기본 지식) - 창업자간 네트워킹 - 연계지원사업의 혜택 ▶ 입주 연장지원으로 고정비 절감, 세금 혜택 등
창업자6	- 멘토링 및 교육 ▶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가능, 시장성 검증 등 -창업자간 네트워킹
창업자7	- 기본교육 - 연계지원사업의 혜택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지원사업, 벤처나라 조달 구매 지원 사업 등 창업지원센터의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제도의 혜택
창업자8	- 컨설팅 ▶ 현장조언중심의 컨설팅
창업자9	- 기업 간 네트워킹
창업자10	- 공간제공(사무공간 제공) - 세무, 노무 교육

<표4-4> 부산시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의견(단점)

대상자	창업지원(부산시 창업지원사업)을 받으면서 아쉬웠던 점은 ?
창업자1	- 지원 금액, 사용 가능 항목 제한적 - 서류작업으로 인한 시간소요 -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화 필요(지원 프로그램의 순서 조정 필요) ▶ 기존 : 교육→입주→컨설팅 ⇒ 입주→교육→컨설팅의 순으로
창업자2	- 지원사업의 체계의 전문화 필요 -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아쉬움
창업자3	- 교육(강사, 교육내용의 전문성 미비) - 지원업종 제한적 ▶ 비주류 업종에 대한 지원사업 및 행사 부족
창업자4	- 지원사업의 체계성 부족 - 초기 기업에만 집중된 지원사업 ▶ 2단계 지원 사업 등 추가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아쉬움
창업자5	- 담당자에 대한 행정사항 ▶ 보육기업에 맞게 담당자 별 개별 안내 및 밀착 지원 필요
창업자6	- 컨설팅 ▶ 창업경험이 없는 컨설턴트와의 컨설팅으로 인한 불만족 - 지원금의 규모 ▶ 지원금 규모 확대 필요성 제시
창업자7	- 멘토링 ▶ 업종과 맞지 않는 컨설팅 - 창업지원센터의 접근성
창업자8	- 기본교육 시간 및 횟수 ▶ 과도한 수수료 기준으로 불필요한 교육 수강 ▶ 교육 일정의 잦은 변경
창업자9	- 행정업무의 속도 ▶ 심사 및 지원금 지급 등 상당 시간소요(한달 이상)
창업자10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서류 접수 방식 최신화 필요)

구분	공간지원	교육·컨설팅	네트워킹	기타지원사업 (후속지원, 판로 지원 등)	행정사항
창업자1		😊	😊		😞
창업자2		😊	😊		😞
창업자3	😊	😞	😊	😞	
창업자4	😊	😊		😞	😞
창업자5		😊	😊	😊	😞
창업자6		😊 😞	😊		😞
창업자7		😊 😞		😊	
창업자8		😊			😞
창업자9			😊		😞
창업자10	😊	😊			😞

<그림4-1>부산시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부산시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장점은 창업자간 네트워킹, 사무 공간 제공으로 의견이 나왔으며 그중에서도 네트워킹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다. 이는 부산시 창업지원사업의 가장 큰 강점은 창업자간의 네트워킹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200개 팀이라는 방대한 창업자를 선발하는 사업인 만큼 그 안에서 각자 자유로운 형태로 네트워크 모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주관기관의 부산경제진흥원에서도 창업자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매년 업종별 교류회(매달 진행) 및 파스타(Party of start-up in cafe)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지원기관에서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한 네트워킹 보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교육·사무공간 사용 등)형성된 인적 네트워킹

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네트워킹 행사 및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창업자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업종에 구애 받지 않고 대표들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사무공간에 대한 제공은 단순히 공간제공에 대한 혜택도 있지만 부산창업지원센터가 있는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얻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만족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사업활동을 하게 되면 세제혜택(법인세, 재산세) 및 특구 육성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 있다.

가장 아쉬운점으로 많이 언급된 것은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한 것들을 확인 할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의 순서 및 더딘 행정업무, 추가 지원사업의 미비 등 보다 넓은 관점에서의 의견이 었다. 이는 부산시 창업지원사업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10년동안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10년 전, 창업지원사업이 다양하지 않을 시절에는 양적인 지원 형태가 적합했을 수 있다. 그러나 지원사업과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양적인 지원보다는 보다 집중력 있는 지원 사업이 필요해 보인다.

일관된 의견이 아닌 상반된 의견이 나타난 항목으로는 교육과 컨설팅 지원 부분이다. 부산시 창업지원사업의 과정으로 필수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해야 수료기업으로 분류가 되며,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한 단순 시수를 채우기 위해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기업들의 불만들이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강사 및 강의 내용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불만들도 다수 있었다. 컨설팅의 경우도 컨설턴트의 전문성 및 해당 업종과 맞지 않는 컨설턴트의 배정 등으로 인한 불만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필수교육이라고 할지라도 초기 창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통해 기본지식을 얻었다는 의견과 시수를 채우기 위해 교육을 수강함으로써 생긴 네트워크에 대한 만족하는 의견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컨설팅의 경우도 아이디어 단계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수립이 가능해졌다는 의견과 현장 지식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통해 교육 및 컨설팅의 경우 프로그램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전문 강사 및 컨설턴트에 따라 만족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집체교육 및 컨설팅의 횟수를 줄이고 기업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진행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컨설턴트와 기업의 매칭을 진행 할 때는 해당 업종 및 아이템의 이해도가 높은 담당자가 진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경우 전체 맞춤형 교육은 행정적으로 힘들 수 있으나, 필수 이수시간을 줄이고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여 기업들이 필요한 교육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하다.

부산광역시에서 창업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부산시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의견을 확인 할 수 가있었다.

<표4-5> 부산광역시의 정책 및 제도 대한 의견(장점)

대상자	부산 내에서 창업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예: 정책적 혜택, 제도적 혜택 등)
창업자1	- IT업종에 대한 지원 사업 다양 ▶ 부산내의 다양한 기관에서의 지원
창업자2	- 창업관련 다양한 정책 및 제도 존재 ▶ 창업현장을 중심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 창업 관련 지원 사업 및 행사의 적극적 홍보
창업자3	-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사업 및 혜택 ▶ 청년 추가 고용,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 존재
창업자4	- 창업자간 네트워킹이 용이 ▶ 필요한 업종의 구성으로 네트워크 조직 구성이 용이
창업자5	- 비교적 경쟁이 덜함 ▶ 부산 내에서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단위 보다 경쟁이 덜함
창업자6	- 부산 내 기업들 간의 네트워킹
창업자7	- 정부기관 및 유사 업종간의 인프라 ▶ 센텀 주변을 중심으로 기관 및 유사 업종의 집중
창업자8	- 다양한 지원사업 및 행사들이 존재
창업자9	- 창업자간 네트워킹
창업자10	- 판로확보 ▶ 부산기업의 가산점 제공 혜택으로 인한 판로 확보 용이

<표4-6> 부산광역시의 정책 및 제도 대한 의견(단점)

대상자	부산 내에서 창업활동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 (예 : 정책적, 제도적인 관점에서)
창업자1	- 투자에 대한 지원 ▶ 투자를 받기에는 지역적 힘든 사항들 존재
창업자2	- 부산과 맞지 않는 지원사업 진행 ▶ 지원사업의 무분별한 벤치마킹 - 투자자 네트워크 부족
창업자3	- 지원사업 선정과정의 공정성 부족 ▶ 심사결과 공개 필요 - 주력 아이템 및 업종에 집중되어 제공되는 혜택 - 사업비 사용항목 조정 필요 ▶ 기업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지원금의 필요성 언급
창업자4	- 업체들 간 협업 부족 ▶ 네트워킹은 잘되나 기술 이전 및 공유 등 협업 부족 - 투자 인프라 부족
창업자6	- 서울지역에 비해서는 지원사업의 개수 및 규모 부족 - 투자 교육 부족
창업자7	-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부족 - 유명 멘토 및 강사 부족
창업자8	- 지원사업 정보획득의 어려움 ▶ 지원사업은 다양하나, 통합되어 볼 수 있는 사이트부재로 인한 정보획득 시간 소요
창업자10	- 지원기관들의 전문성 결여 ▶ 비전문가들의 사업 기획 및 진행으로 비즈니스 생태계 혼란

구분	네트워킹	지원사업 전반	지원사업 인프라	투자 관련
창업자1		😊		😞
창업자2		😊		😞
창업자3		😊		
창업자4	😊			😞
창업자5			😊	
창업자6	😊			😞
창업자7			😊	
창업자8		😊		
창업자9	😊			
창업자10		😊	😞	😞

<그림4-2> 부산광역시의 정책 및 제도 대한 의견

정책 및 제도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부산광역시에서 전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인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지원기관들이 존재한다는 것에는 대다수 동의 하였다. 그중에서도 네트워킹과 인프라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는데, 부산 지역 내 창업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조직구성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 또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지원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 아닌, 기업 간 자유롭게 형성된 것이 대부분 이였다. 이를 통해 부산지역의 지역적 특색으로 네트워크 형성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기업 간의 기술이전이나 협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인적 네트워크 형성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반면, 다양한 지원사업 및 행사가 존재함에도 정보획득이 힘들다는 점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각 주관 기관별로 진행되는 지원사업은 각 주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만 확인이 가능하여, 통합적으로 알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부산광역시에서 전체적인 통합 시스템구축 등을 통하여 기업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할 수 있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기업들은 정보획득이 용이해 질 것이며 지원기관에서도 현재 기업을 모집하기 위해 소요하고 있는 홍보비용의 다수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업종 및 기업의 한정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심사기준 공개 및 이의 제기 가능 등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각 지원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투자와 관련된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부산광역시는 'BIFC연계 스타트업 금융 허브화³⁾'의 목표에 맞게 창업기업과 금융·공공기관과 민간인프라를 매칭 하여 금융·투자 클러스터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직 시작 단계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정책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가 얻은 정보는 기업들은 직접적인 투자보다 투자인프라를 원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인프라는 예를 들면 서울산업진흥원(SBA)⁴⁾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다. 투자자 및 투자 기관들을 자연스럽게 만나며 투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재 투자 지

3)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엔젤클럽, 투자회사,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집적된 스타트업 금융클러스터 구축으로 기술창업타운 조성 및 민간 창업보육 및 투자기관(롯데 L-camp,, KRX·IBK창공(創工), KT&G 상상마당 등) 유치로 창업기업의 고속성장지원 정책('19~22년)

4) SBA에서는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별도의 액셀러레이팅센터를 운영하고있으며 입주부터 투자까지 하나의 단계로 이루어 질수있게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 투자기관, 유관기관, 전문기관간의 협업으로 이루어 진다.

원사업들의 대다수는 지원기관에서 일부 기업을 선정·심사하여, 투자자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 이러한 형태보다는 기업이 직접 투자자 및 투자기관의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인프라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V. 결론 : 시사점 및 향후 발전 방향

1.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지원기업의 입장에서 현재 부산시 창업지원사업 및 부산광역시의 창업정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향후 부산시 창업지원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원사업 프로그램 구성 및 부산시 창업지원사업의 정책에 관한 전반에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는 창업자간 네트워킹이 가장 주요하였다. 둘째로, 불만족 및 개선사항으로는 투자 인프라 및 교육 등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지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행정사항에 관한 불만들을 확인 할 수있다. 구체적 예로는 서류제출 방식 및 서류준비과정, 심사과정등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 였다. 앞서 기술한 내용 이외에도 지원사업이 판로확대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 국비사업을 그대로 따라한 듯 한 부산시 지원사업, 지원규모가 작음, 지원기관의 전문성 결여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창업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림5-1> 기업의 수요도와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의 도식화

파란색의 경우 수요자들이 만족도가 높은 항목들 이므로 발전 방향에서 고려대상이 아니다. 빨간색 글자들의 경우 수요자들이 공통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은 언급한 사항들이다. 그중, 개선의 시간소요가 낮은 행정사항에서 부터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원사업 진행 시 불필요한 증빙서류 최소화하고 지원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행정사항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부산광역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사이트 구축이 필요하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이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창업넷’과 같은 부산광역시만의 통합된 시스템구축을 통하여 지원기업들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활성화가 진행된다 고 가정하면, 지원기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홍보를 위한 예산들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기업의 수요는 가장 높은 ‘투자’부분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요는 투자 중에서도 ‘투자 인프라’와 관련된 것들 이었다. 투자자를 만날 기회가 많고, 본인들의 아이템 및 회사를 투자자들 앞에서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는 전반에 관한 인프라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 전문기관의 유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에만 집중되어있는 투자기관 및 투자펀드중 상당부분을 부산으로 유치한다면 기업들이 원하는 인프라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것이다. 부산시에서 그러한 노력을 하는 동안 각 지원기관에서는 기업들이 투자관련 발표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역량 강화를 목표에 두고 기업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투자기관의 부산이전이 성공하였을 때 역량 있는 기업들의 투자 유치 성공사례들이 발생하여야만 진정한 ‘투자 인프라’ 형성이 되는 것이다.

다양한 의견으로 나온 교육·컨설팅 및 후속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들은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가능한 다양한 메뉴를 제시하여 기업들이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부산시 창업지원사업’에서 진행하였던 기본 교육 및 컨설팅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사항들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의 방향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단점은 새로운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 먼저, 보다 많은 인터뷰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풍부한 내용을 추가하는 후속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부산시 창업지원사업’뿐만이 아닌 국비로 진행되는 창업지원사업의 지원기업들을 포함시키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창업지원사업’을 전혀 받아보지 않은 기업들의 인터뷰도 필요하다. 부산시 창업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타 사업에만 있는 지원 프로그램(특허지원, 인증지원, 글로벌 진출 등)에 대한 의견과 지원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기업들의 수요 및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들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제공하지 못 하였다. 사전에 인터뷰지를 공유하여 질문에 대한 의견을 준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대부분 직관적인 대답으로 인해 인터뷰 도중 답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원기업으로부터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향후 연구는, 본 연구를 기반으로 지원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지원사업과 기존의 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경영 성과 분석, 차년도 지원사업 기획 시 전년도 수혜기업의 의견 반영에 따른 성과 분석 등 지원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지원사업과 그렇지 않은 지원사업의 차이에 대한 연구 등이 예상된다.

본 연구는 향후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원기업의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의 방향으로 진보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사업 및 프로그램(행사) 기획 시 참고할 만한 자료로 의의 가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문헌

1. 국내 문헌

고세훈(2011). “중소벤처기업의 경쟁전략과 경영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p108-114

김선우, 김영환, 이정우, 김보건, 서여주, 구원모, 홍운선, 고혁진(2017),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 과학기술 정책 연구원 조사연구, p50-58

김용정, 송영근(2014), “심층인터뷰 방법을 이용한 한국 항공물류산업의 장애 요인과 발전전략 연구”,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293-318.

김춘근(2015). “창업지원시스템과 창업가역량이 초기 기술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기업을 대상으로”,박사학위논문, 한국산업기술대학교p39-58

나미수(2012), 「미디어 연구를 위한 질적 방법론」 CommunicationBooks

박남규(2015). “창업지원정책 및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영향: 사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여”p.32-33

이무형(2011). “호텔기업 브랜드 증거의 전환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이영주,양영석 (2018),“창업가가 인식한 정부창업지원사업 중요도와 만족도
및 기대충족도가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p32-38

이효선(2005), 「질적연구 :해석과 이해」 학현사

전인오(2012). “창업지원이 청년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
구,p103-114



2. 국외 문헌

Asa Berger, A.(2000).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method. 류춘렬·김대호·김은미 옮김(2001). 「커뮤니케이션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Lawson, B., & Samson, D. (2001). Developing innovation capability in organisations: a dynamic capabilities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innovation management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부산창업지원센터입니다. 본 설문은 '부산시 창업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관한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부산시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응답자의 신분을 익명으로 처리할 것이며, 응답하신 내용들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본 설문에 대한 솔직한 의견은 귀중한 자료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정현주

Q1. 각자 기업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Q2. 창업지원(부산시 창업지원사업)을 받으면서 도움이 되었던 점은 ?

Q3. 창업지원(부산시 창업지원사업)을 받으면서 아쉬웠던 점은 ?

Q4. 부산 내에서 창업활동 하면서 좋았던 점은 ?

(예 : 정책적 혜택, 제도적 혜택 등)

Q5. 부산 내에서 창업활동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예 : 정책적 혜택, 제도적 혜택 등)

Q6.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나